

석사학위청구전

食卓色談, 식탁 위
우리들의 이야기

2021년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회 화 과

동양화와진채화전공

이 채 원

석사학위 청구전
지도교수 김선태

食卓色談, 식탁 위
우리들의 이야기

The color story on the table

2021년 6월 일

학 성 대 학 교 대 학 원

회 화 과

동양화와진채화전공

이 채 원

석사학위 청구전
지도교수 김선태

食卓色談, 식탁 위
우리들의 이야기

The color story on the table

위 논문을 미술학 석사학위 청구전으로 제출함

2021년 6월 일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회 화 과

동양화와진채화전공

이 채 원

이채원의 미술학 석사학위 청구전을 인준함

2021년 6월 일

심사위원장 _____(인)

심 사 위 원 _____(인)

심 사 위 원 _____(인)

Lee chaewon

이채원 석사학위청구전

식탁색담

식탁 위 우리들의 이야기

2021. 5. 12. 수
- 5. 16. 일

GAGOSIPO GALLERY

가고시포갤러리
서울 종로구 북촌로 5가



“일상에서 받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작품에서 보여주고자 하였고,
‘익숙함에서 새로움을 찾는 시선’으로 음식을 먹는 행위를 바라보았다.”

어릴 적, 수저 놓으라는 엄마의 소리에 곧장 부엌으로 향했다. 칼칼한 찌개 냄새를 맡으며 부엌으로 향하는 짧은 순간,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느낄 수 있었다. 주말 점심은 가족 모두가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었다. 식사는 수저와 그릇이 부딪쳐 내는 경쾌한 소리로 시작되고 그 소리가 줄어들 때쯤 화두가 던져진다. 맛깔스러운 음식을 먹으며 각자가 보낸 한 주를 이야기하는 시간은 따뜻한 기억으로 남아있고 지금의 나에게도 영향을 주고 있다. 나는 반복되는 하루에 위로를 받으며 그 속에서 새로운 감정을 느낀다. 그리고 그것은 나의 삶에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일상에서 받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작품에서 보여주고자, ‘익숙함에서 새로움을 찾는 시선’으로 음식을 먹는 행위를 바라보았다.

< 구애 >

식사 때는 어김없이 눈치를 살피게 된다. 식탁에 앉은 사람들과 공평하게 음식을 나누고 있는지 살피기 위해서이다. 배려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을 가정할 때, 사람들은 어떤 태도를 하고 있을까. 음식을 향해 경쟁하듯 구애하는 모습이 상상됐다.

< 주인공의 덕목 >

생일파티의 클라이맥스는 소원을 빌기 위해 촛불을 끄는 순간이다. 입으로 바람을 불어서 촛불을 끄는 것이 통상적인 방법이지만, 작품 속 인물은 손으로 불씨를 잡아 촛불을 끄고 있다.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은 아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처럼 어떤 상황을 직면하게 되면 그에 걸맞은 모습으로 변하게 된다. 다소 엽기적으로 보이는 이 행동은 생일파티의 주인공으로서 보여줄 수 있는 용기가 아닐까.

< 일상이 깨질 때 >

마루 위에는 깨진 그릇 조각이 흩어져 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던 날. 깨진 그릇 조각은 그날의 지루한 평화로움을 건드리는 자극이 되었고 환기의 순간으로 다가왔다.

수고스럽게 차려진 밥상이 우리에게 전달 될 때의 감정은 따뜻함이라 생각한다. 단단함과 부드러움이 공존하는 나무는 따뜻한 감정을 표현하기에 적합한 재료이다. 작업에는 얇게 저민 대패밥을 종이에 붙이는 콜라주 기법을 사용하는데, 대패밥을 한겹 한겹씩 붙이는 과정을 통해 사람과 사물의 축적된 시간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고자 했다. 나이트를 늘리며 성장하는 나무처럼 우리도 매 순간을 성장한다. 내가 작업에서 다루고 있는 식탁이야기는 지극히 일상적인 소재이기 때문에 나무의 물성과 맞닿아 있다.

나는 일상에서 식사시간은 쉼표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 크고 작은 일을 겪으며 일상을 살아가는 누군가에게 나의 이야기가 환기의 순간으로 다가갔으면 좋겠다.



나를 위한 시간

59.5×84 cm 장지에 나무, 석채 2021



비빔밥

30×42 cm 장지에 나무, 석채, 옷칠 2020

주인공의 덕목

68×67 cm 장지에 나무, 석채, 옷칠 2021





어디까지 가는 걸까요

130.3×162.2 cm 장지에 나무, 석채, 옷칠 2021



마음은 급하지만 포기할 수 없어

100×80 cm 장지에 나무, 석채 2019





맛있는거부터

22×27.4 cm 장지에 나무, 석채, 옷칠 2020



숨바꼭질II

22×27.3 cm 장지에 나무, 석채, 옷칠 2020



반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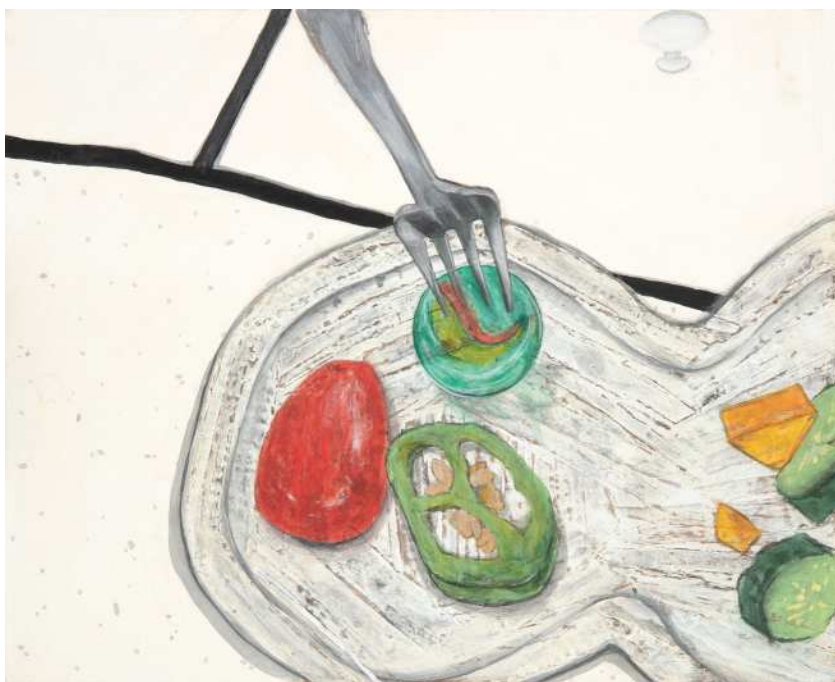
53×65 cm 장지에 나무, 석채, 옷칠 2019





나 준비했어

45.5×38 cm 장지에 나무, 석채, 옷칠 2019



수상한초대

22×27.3 cm 장지에 나무, 석채, 옷칠 2020



양손잡이

22×27.3 cm 장지에 나무, 석채, 옷칠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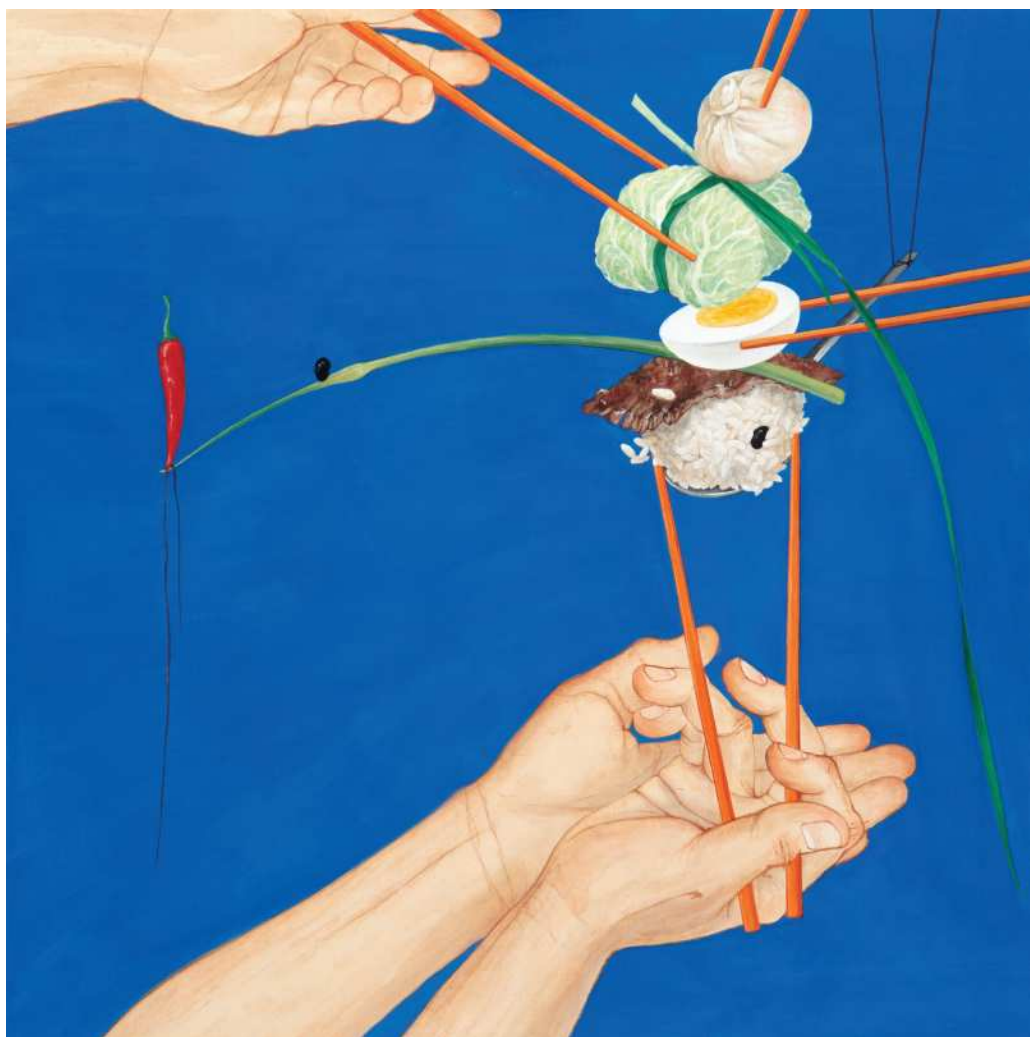
일상을 지켜낸 순간들

53×186 cm 장지에 나무, 석채, 옷칠 2021



₩ 12,400
₩ 3,000
₩ 9,400
₩ 1,000





공든탑

50×50 cm 비단에 석채 2020



어느하루

65×53 cm 장지에 나무, 석채 2021



SINCE1956

91×73 cm 장지에 나무, 석채 2019

<SINCE1956>의 부분들





일상이 깨질 때

65×45 cm 순지에 나무, 석채 2018



숨바꼭질 I

27.3×22 cm 순지에 나무, 석채 2018

작가약력

이채원 Lee chaewon

tootuouo@gmail.com
grafolio.naver.com/tootu

학 력

- 2019 한성대학교 일반대학원 회화와 동양화와진채화 전공 석사 수료
2018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미술공예학과 전통회화전공 학사 졸업

개인전

- 2021 食卓色談 ; 식탁 위 우리들의 이야기, 가고시포갤러리

단체전

- 2021 서울의 풍경, 갤러리한옥
세화전 관창_소?!, 갤러리이즈
2020 나의 밤은 당신의 낮보다 아름답다, 석파정 서울미술관
아시아프&히든아티스트 페스티벌, 홍익대학교 미술관
도화서 회원들의 B급 전시, 인사아트센터
2019 천년 전통의 새해맞이 그림선물 축제 : 세화전, 한옥갤러리
진채의 정수 : 초상, 갤러리이즈
아시아프&히든아티스트 페스티벌, 동대문디자인플라자
2018 천년 전통의 부활 : 세화전, 갤러리한옥
하얀, CU 갤러리

수 상

- 2019 네이버 그라폴리오 하반기 지원 공모 <회화> 부문
아트 올림피아 2019 공모전, 준선외가작
2016 제1회 천태 예술 공모대전, 장려상

자격증

- 문화재 수리 기능자 화공 제8731호